

2008 새해실례 ⑨

포천시 대스스포츠 경기연맹 회장 이규환

“초·중·고 연계 대스스포츠 교육시스템 갖춰야”

25개 체육가맹단체 예산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2007년도에 설립된 포천시 대스스포츠 경기연맹(회장 이규환)은 모두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병기 전무이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학교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어린 학생들이 포천시에서 교육을 더 받고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학교때까지는 경기연맹에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에서 대스스포츠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어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

대학교에 대스스포츠학과가 설치되어 있어 포천시에서 초·중·고 대스스포츠 교육이 연계가 된다면 훌륭한 선수육성은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회장은 따라서 포천관내 고등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대스스포츠를 육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정급 이상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3회 이상 수상하면 대

학입학에 가산점이 부여되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며 대스스포츠 경기연맹이 선수육성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라며 학교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3년째 지원예산이 동결돼 있는데 좋은 선수 발굴을 위한 각종 대회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밝히고 운동장 사용 등에 있어 공무원들의 비전문적인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천시가 정말 체육이 강한 도시로 육성되기를 바란다면 종합체육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매머드급 체육관을 신축해야 한다. 시유지를 활용하여 야구장, 수영장 등 부족한 시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그 동안 많은 신문사가 있었지만



이제 포천신문이 포천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체육관련 기사를 좀더 행거서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체육 발전의 저해요인들을 지적해 주었으면 좋겠다”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진정한 겸손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장

달콤하면 서도 상큼한 향기로 힘든 생활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울릉불꽃 찌그러지고 못생긴 사과일수록 그 향기가 더욱 짙다는 사실입니다.

매끈하게 잘생긴 것은 눈으로 보기에 좋을지 몰라도, 향기는 그리 짙지 못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의 마음도 그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너무나 완벽할 정도로 잘생긴 사람보다는 그리 잘생긴 것 못해도 부드러운 위 보이는 인상의 사람에게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알입니다.

인간(人間)이란 단어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단지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울림은 모두가 스스로를 조금씩 낮추는 노력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기도.

비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 속담처럼 남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행동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이라고도

겸손하다는 것이 무조건 자기를 내보이지 않고, 무조건 제 뜻을 주장하지 않고, 또 무조건 스스로를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북종일 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자신답게 아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인격자로 대우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허세가 없고 오만하지 않은 자존심, 따뜻하지만 약하지 않은 마음이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겸손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넓은 까닭은 그것이 어떤 강이나 냇물보다도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하게만 느껴지는 물이 단단한 바위를 닳아 없앱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활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게 세상을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안겨 주기도 합니다.

위로나 격려의 말은 낮은 목소리로 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사랑의 말도 속삭이듯 부드럽게 건네는 것이 제격입니다.

미사 봉 말뚝 센터 중에서 (문의 011-342-5834)

건강도우미양성반 수강생 전원 자격증 취득

포천관내 여성 15명 근로복지공단 인정 이수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여성생활기술아카데미 ‘건강도우미양성반’

수강생 전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 한 ‘환자(노인)간병 전문과정’ 이 수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한 농촌여성생활기술아카데미 ‘건강도우미양성반’ 수강생 전원이 근로복지공단이 인정 한 ‘환자(노인)간병 전문과정’ 이 수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지난 4월 1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60시간)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노인성질환, 치매노인 간호, 환자정결, 회복기 환자간호 관련 이론과 음식물 투약법 등의 실기, 노인전문병원(포천시 내촌면 소재 해동병원) 현장 실습으로 추진했으며, 교육 종료 후 소정의 평가를 통해 전원이 이수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은 “본 교육을 통해 노인과 환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건강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가족과 주변, 자신의 질병진단과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병원 등에 취업할 기회가 열려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센터 관계자는 “자녀에도 농촌여성생활기술아카데미를 통해 15명이 ‘환자(노인)간병 전문과정 이수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모현센터(포천시 신읍동 소재)에서 매월 2회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그 중 2명이 이수증 취득 후 병원과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자격증 시대에 발맞춰 농촌여성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취업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문 자격증 관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forme64@paran.com

포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합동 단속

야간 합동단속을 통한 게릴라성 암체광고주 근절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는 지난 14일 야간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 및 인도에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청, 소흘읍사무소,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중점정비 지역은 43호 국도변(포천동-소흘읍) 및 소흘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해 무질서하게 인도에 설치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노래방 및 유흥주점 등의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했다.

불법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벽보 등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육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해당되는 때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야간에 설치했다가 주간에 사라지는 게릴라성 암체광고주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forme6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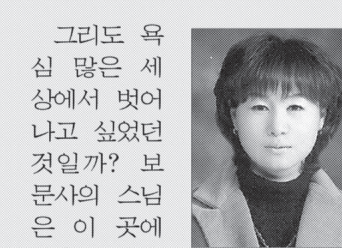


포천시는 지난 14일 야간을 이용해 주요 도로변 및 인도에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복 받은 나라에서 태어남을 감사

지면이 작은 나라에서 바다 그리도 욕심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보문사의 스님은 이 곳에 삶을 물었다. 보문사의 스님은 욕심도 많다. 자연을 모~두 벗 삼았으니...

그리고 욕심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보문사의 스님은 이 곳에 삶을 물었다. 보문사의 스님은 욕심도 많다. 자연을 모~두 벗 삼았으니...



이 미 정 주부명예가사님 신봉안주부명

스승

쿵쿵! 하면 달려가서 온몸으로 추스르고 안돼! 라고 외치면 보듬어서 얼싸안고 싫다! 라고 뿌리치면 한 손 돌려 웃으시며 다독거리니

당신은 뒷동산에 묵묵히 앉아 등을 내어주는 바위였습니다



윤 정 자 주부명예가사님 김사

있는 자에게 내물리고 가진 자에게 깃뎌서서 같 곳 몰라 헤매이는 어린양의 등불입니다.

이곳에 우매한 이의 목청소리 들끓다한들 눈 가리고 귀 막는 풀마니를 실천다한들 당신이 계시기에 안심입니다.

당신은 순박하고 사랑스런 포천인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우뚝 솟아나 포천을 지키는 부드러운 바위입니다.

무자녀 오월 스승의 날에

학교급식 4억4천만원 확정

포천초등학교 등 16개교 지원

포천시(시장권한대행 심재인)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규모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2008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5월13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학교급식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07년도 지원수준인 15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농촌형 급식학교에서 도시형 급식



포천시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규모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2008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5월13일 개최했다.

포천시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춘계 체육대회

현장에서 고생하던 노동자들이 모여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난 5월 3일 영종면 백로주 유원지에서 포천시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회장 이규직)는 이경림 포천시의회 의장 및 이우형 경기도의원, 이상용 영북농협 조합장 등 내빈과 노동조합원 및 가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규직 의장은 “우리 노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근간을 두고 자생하는 지역노동조합 협의체로서 1천428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거대한 조직으로서 그동안 지

역사회를 위해 수 년간 초등학교 결식아동돕기, 어린이날 행사 개최 등 지역사회를 위해 작지만 많은 일을 해왔음을 자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전 조합원 체육대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 조합원 자녀 훌라후프돌리기, 단사벌 족구대회, 행운권 추첨 등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항상 투쟁의 현장에서 고생하던 조합원과 가족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포천시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전국농협 노동조합 연·포천지부, 민주 공무원 노동조합 포천지부, 민주연합 포천지부, 전교

학교급식 4억4천만원 확정

학교로 전환되어 교육지원금이 삭감된 포천초등학교 등 16개 학교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중학교의 경우는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삼성중학교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 총 17개 학교에 약 4억4천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내용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토의해 결정했으며, 위원장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많은 연구와 토의를 통해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행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수가 점차 감소하는 관내 소규모학교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공급을 도모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해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현 기자 forme64@paran.com

춘계 조합원 가족 수련회



지난 5월 3일 영종면 백로주 유원지에서 포천시 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노동조합원 및 가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조 포천지회, 사회보원 포천지부, 아도니스 노동조합, 필로스 노동조합, 전국축협 노동조합 포천지부, 포천병원지부, 민주택시 동우운수분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기영 주부명예가사님 부단장 hsd5333@hanmail.net